

韓國 歷代 《說文解字》 研究 綜述*

河 永 三**

<目次>

- | | |
|--------------------------|---------------------|
| I. 한자의 유입 | IV. 일제 강점기의 《說文》 연구 |
| II. 《說文》의 유입과 사용 | V. 대한민국 시대의 《說文》 연구 |
| III. 朝鮮時代 《說文》 관련 文論과 著作 | |

I. 한자의 유입

한국에 한자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중국과 본격적으로 교류하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 衛滿朝鮮(기원전 2세기)이 만들어지고 ‘漢四郡’(기원전 108~기원전 107)이 설치되었던 시기에는 한자가 어떤 식으로든 유입되었을 것이다.



慶南昌原茶戶里出土實物“毛筆”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 2010년 9월 16~19일 上海 華東師大(中國文字研究與應用中心)에서 열린 “網絡時代與中國文字研究國際高級專家研討會”와 10월 27~28일 河南省 漯河에서 열린 “第2屆許慎文化國際研討會”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 慶星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 韓國漢字研究所所長(ysha@ks.ac.kr)

1988년 慶尙南道 昌原市 東邑 茶戶里에서 출토된 기원전 1세기 때의 실물 ‘붓’(총 5자루, 黑漆 목심의 붓대는 마루를 깎아 만들었고, 양쪽 끝에 필모가 달렸음)과 죽간이나 목독 등에 잘못 쓴 글자를 고치는 데 쓰던 칼인 ‘黑漆 書刀’(길이 29.2cm)는 당시 한반도에서 한자가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해 주었다.¹⁾ 특히 法碼와 동전이 함께 출토되어 이들 필기구가 당시 철을 매개로 한 상품 교역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록 수단이었음을 추정케 해 주고 있다.²⁾ 게다가 이 지역이 한반도의 남동쪽 끝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맞닿아 있던 북쪽 지역에서는 한자의 유입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³⁾

또 茶戶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金海 良洞里的 伽倻 遺蹟(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에서는 아가리(口緣)에 漢나라 전서체로 “西口銅鼎, 容一斗, 并蓋重十一斤, 第七.(서□의 청동 솥, 용량은 1말, 뚜껑의 무게는 11근, 7번째 기물)”이라고 새긴 漢나라 청동 솥이 출토되어⁴⁾, 기원전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때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 1) 李健茂, <茶戶里 遺蹟 발굴의 의의>(《갈대밭 속의 나라 다호리-그 발굴과 기록》(국립중앙박물관, 2008), 167쪽. 또 <茶戶里遺蹟 出土 붓(筆)에 대하여>, 《고고학지》(한국고고미술연구소)4(1992.12), 5-29쪽 참조.
- 2) 李健茂, <茶戶里 遺蹟 발굴의 의의>(위의 책), 171쪽.
- 3) 이외에도 《漢書新注》(卷96下) <西域傳>(第66下)에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 又雍(壅)闕弗通. 元封二年, 漢使涉何譙論右渠, 終不肯奉詔.”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元封 2년 즉 B.C.109년에 한반도 북쪽의 眞番과 남동쪽의 辰國에서 한자가 사용되었음을 추정하게 해 주고 있다.
- 4) 李學勤은 원래 이를 “西口宮鼎, 容一斗, 并重十七斤七兩, 七.”로 고석했으나(<韓國金海良洞里出土西漢銅鼎>(《失落的文明》(上海藝文, 1997), 179~181쪽), 이후의 글에서 이렇게 수정했다. 아울러 西자 다음에 있는 글자를 鄉으로 추정하고, 지명이며 제후의 봉지일 것이며, 이곳은 《한서·지리지》에서 말한 “涿郡에 있는 西鄉”이며, 西鄉侯로 봉해진 사람은 漢 元帝 初元 5년(기원전 44년)에 제후로 봉해진 劉容과 그 뒤를 이은 劉景 뿐이기에 이 청동 정은 서한 원제 후기 때나 그보다 약간 늦은 때의 것일 것으로 추정했다. 李學勤, <韓國金海良洞里出土西漢銅鼎續考>(《中國古代文明研究》(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5), 123~125쪽) 참조.

한자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高句麗의 <廣開土大王碑>(일명 <好太王碑>)(414)와 新羅의 <壬申誓記銘石>(552~612) 등에 이르면 한자의 사용은 이미 일상 수준으로 보편화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說文》의 유입과 사용

한자처럼 《說文》이 언제 유입되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說文解字》은 晉代에, 《玉篇》은 宋代 초기에, 《廣韻》은 宋代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현전하는 문헌에 남아 있는 더욱 구체적인 유입시기와 사용례를 확인하기 위해 河永三의 《韓國歷代中國言語學文論集成》(2003)과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인 KoreaA2Z(東方Media韓國學DB), KRPIA/MMPIA(NURIMedia韓國學/Multimedia DB),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등에 근거해 조사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朝鮮時代 이전의 경우, 《三國史記》·《三國遺事》·《三國史節要》·《東國通鑑》·《麗史提綱》 등에서는 《說文》의 인용예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다음처럼 《高麗史》에서만 2例가 등장한다.

1. 073志27/選舉/科目/科擧: “仁宗五年三月, 詔復用詩·賦·論. 九年三月, 判防丁監試, 雖入仕, 必以詩·賦, 選取. 十四年八月……凡明書業式, 貼經二日內, 初日, 貼說文六條, 五經字樣四條, 全通, 翌日, 書品, 長句詩一首, 眞書·行書·篆書·印文一, 讀說文十機, 內破文兼義理, 通六機, 每義六問, 破文通四機……”(인종 5년 3월, 復試에서 詩와 賦와 論을 시험했다. 9년 3월, 判防丁監試에서 비록 入仕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詩와 賦를 시험해 관리를 뽑도록 했다. 14년(1136년) 8월……明書業式에서 貼經의 형식⁵⁾으로 이들 동안 시험을 치렀는데, 첫날은 《說文》 6조항,

《五經字樣》 4조항씩 집경하여, 모두를 통과해야 했다. 다음날은 書品을 시험했는데, 長句詩 1수, 眞書·行書·篆書·印文 각 1조목, 《說文》 10機를 물어, 文字과 義理에 대해 해독해야 했고, 그중 6機를 통과해야 했고, 매번 6가지씩 물어, 文字에 관해 4機를 해독해야 했다……”)

2. 074志28/選舉/學校/國學: “仁宗朝, 式目都監, 詳定學式……有暇兼須習書, 日一紙, 并讀國語·說文·字林·三倉·爾雅. 五年三月, 詔, 諸州立學, 以廣教道. ……”(인종 때에 式目都監에서 學式을 상세하게 정해두었다……틈날 때마다 서예를 익혀야만 했는데 매일 한 장씩 써야 하고, 또 《國語》·《說文》·《字林》·《三倉》·《爾雅》 등을 읽어야 했다. 5년 3월, 조서를 내려, 여러 州에 학교를 세워 널리 道를 가르치도록 했다……)

고려 인종은 1122년부터 1146년까지 재위했고, 인종 14년이라면 1136년이다. 이를 통해 고려 때의 과거시험에서 《說文》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說文》은 고려조에서 관리가 되기 위한 필독서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Ⅲ. 朝鮮時代 《說文》 관련 文論과 著作

앞의 한국 고대문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조선 시대의 《說文》 언급 예는 《說文》에 대한 본격적 연구라기보다는 단순한 인용으로, 어려운 글자를 해석하거나 器物의 이름 등을 풀이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5) 科擧 시험 방법의 하나로, 經書의 본문 또는 註疏를 1행만 남겨 놓고 앞뒤를 덮은 위에 또 그 행의 몇 자를 덮고 알아맞히게 한 것을 말한다. 貼은 帖으로도 쓴다.

1. 《說文》의 인용

“역대 문헌”, 《承政院日記》, 《王朝實錄》, 《高純宗實錄》, “韓國文集總刊”, “國學原典” 등에서 인용된 《說文》예의 구체적 사례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출 처	출현 횟수	예
“歷代文獻”	71회	1. 丁若鏞: 經世遺表 9卷>地官修制 2. 崔昱: 簡易集 9卷>稀年錄.
《承政院日記》	2회	1. 高宗 38年辛醜(1901.8.11,甲辰)條 2. 高宗 38年辛醜(1901.12.27, 己未)條
《王朝實錄》	11회	1. 世宗 12年(1430) 1條 2. 世宗 五禮 5條 128 五禮/吉禮 瑞禮/樂器圖說/鏡 133 五禮/軍禮 瑞禮/兵器/槍·長劍·劍 133 五禮/軍禮 瑞禮/兵器/甲冑 133 五禮/軍禮 瑞禮/兵器/鐸·鉦 133 五禮/軍禮 瑞禮/兵器/矛·戟·鉞 3. 中宗 16年(1521) 1條 ⁶⁾ 4. 光海君 2年(1610) 2條 5. 英祖 26年(1750) 1條 6. 正祖 13年(1789) 1條
《高純宗實錄》	2회	1. 高宗 38年(1901) 1條 2. 高宗 39年(1902) 1條

6) “오늘 아침 일찍이 상사 역시 사람을 보내 신에게 聖人圖 1軸과 許氏의 《說文解字》 1帙을 보내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上國 사람이 보낸 것이므로 감히 아웁니다. 어제 즉시 와서 아뢰어야 했으나 날이 저물어 오지 못했고, 부득이 횡폭에 발문을 지어주었습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칭찬 글을 경이 지어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보내온 물건은 받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 사신이 보내온 《說文》에 관한 기록이다.

<p>“韓國文集 總刊”</p>	<p>15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靑莊館全書》卷之二十>雅亭遺稿(十二)○應旨各體 2. 《洽齋集》卷之十一>策>六書策>奎章全韻校正諸臣製進 a_260_125d 3. 《貞齋閣集》>貞齋閣集序>[序]>序[陳鱣] a_261_596a 4. 《貞齋閣集》>菴閣文集卷之二>[文]>六書策 a_261_625a 5. 《弘齋全書》卷五十一>策問四>文字韻書編釐諸臣應製及抄啓文臣親試更試 a_263_287a 6. 《惕齋集》卷之七>對策>[文字] a_270_155c 7. 《研經齋全集》>外集卷九>詩類>毛許異訓 a_275_423a 8. 《研經齋全集》>外集卷二十>孝經類>今古文辨 a_276_193a 9. 《研經齋全集》>外集卷二十二>總經類>十三經考上 a_276_229a 10. 《與猶堂全書》>第二集經集第二十二卷○尙書古訓>堯典 11. 《臺山集》卷十七>闕餘散筆>榕村第三 a_294_591a 12. 《阮堂全集》>阮堂先生全集卷一>辨尙書今古文辨[下] a_301_024c 13. 《鳳棲集》卷之六>杞溪俞莘煥景衡著>雜著>文學難 a_312_096b 14. 《瓚齋集》>瓚齋先生集卷之十>書牘>與王霞舉軒 a_312_490a 15. 《雲養集》>雲養集卷之十>序[二]>說文翼徵序 a_328_404c
<p>“國學原典”</p>	<p>28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五洲衍文長箋散稿》>天地篇/天文類>風雲雷雨電虹>[0043]風雲雷雨電虹皆有神物辨證說 2. 《五洲衍文長箋散稿》>天地篇/地理類>邦國>[0164]東土九夷六部辨證說 3. 《五洲衍文長箋散稿》>天地篇/天地雜類>鬼神說>鬼神辨證說

2. 文論과 著作

조선시대 때 찬술된 《說文》에 관한 文論과 著作을 저자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李灝(1681~1763)의 <說文>7)

이는 許慎의 《說文》에 대한 가치와 한계를 강조한 초기 단계의 文論이다. 우선 《說文》의 說解에 대한 권위와 신빙성을 강조하여, “한나라 허신의 《說文》의 해설이 가장 오래되었고 믿을만하며(漢許慎說文其說最古可信)”, “허신은 한나라 때의 사람으로……후세의 잡가들보다 믿을만하다(而慎乃漢時人……, 比後之雜家爲可信.)”라고 했다. 그러나 허신의 《說文》을 맹신하지는 않아, 《說文》은 “오늘날의 판본과 다른 부분도 많다(而多與今文不同)”고 하였으며, 글자 해석상의 부당한 곳을 지적하며 “획가 활을, 두강이 술을, 신농이 거문고를, 포희가 큰 거문고를, 숙사가 처음으로 바닷소금 채련법을, 이모가 화살을 만들었다고 했지만(又云揮作弓, 杜康作秫酒, 神農作琴, 炮犧作瑟, 宿沙作初煮海鹽, 夷牟作矢)”, “활과 화살은 <계사>에 처음 보인다. 허신이 어떻게 이를 모르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然弓矢之始見於繫辭, 慎豈不知而云爾耶)”라고 했다. 이는 李灝이 조선조 실학의 선구자답게 《說文》과 許慎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비판했던 일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 沈有鎮(1723~?)의 《第五游》8)

“문자학에서 노닌다”9)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第五游》는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한자 자원 연구서라 할 수 있다. 현재 연세대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古朝-41-73, 등록번호 16991)에 소장되어 있으며, 李圭甲 교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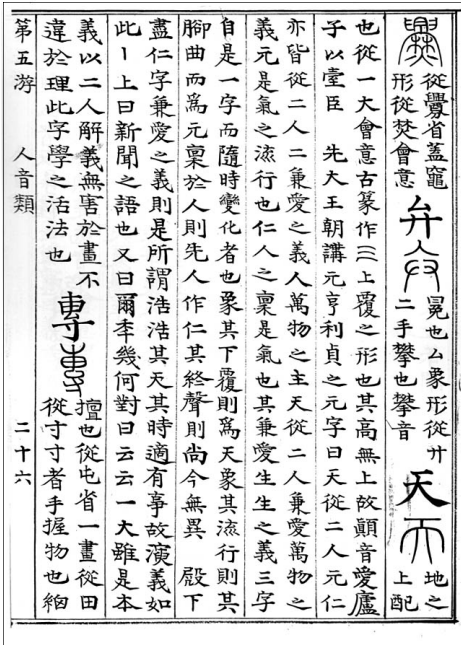
먼저, 책의 구조를 보면, 제일 앞에 ‘目錄: 檢字類: 二百三字(內疊字二)’으로 제목이 붙어 있고, 이어서 檢字 203자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했

7) 李灝은 字가 子新, 號가 星湖이며, 이 글은 《星湖僿說》 第18卷 ‘經史門’에 보인다.

8) 沈有鎮은 字가 有之이고 號가 愛盧子이다. 이 책은 未完稿로 寫本이며 1冊 103張으로 구성되었다.

9) “第五游, 游於藝之義, 書於六藝居其第五也.”(沈來永, <第五游跋>)

10) <第五游初探>, 《中國語文學論集》(중국어문학연구회) 49집, 2008.





沈有鎮《第五游》書影

글자 배열은 《三韻通考》의 순서를 따랐다고 했으며(沈來永, <第五游跋>), 개별 글자의 해석 체계는 다음과 같다.







赤叅: 南方色也, 從大從火, 會意. 而蓋是南方朱雀之色, 故雀音, 俱是齒音. 赤子赤地, 以色而言, 赤族赤貧, 皆貧乏無餘之意, 赤地之類推與尺同. (赤: 남방의 색을 말한다. 大로 구성되었고 火로 구성되었다. 會意이다. 남방을 뜻하는 朱雀의 색을 말했기에, 독음이 雀인데, 모두 齒音이다. 赤子和 赤地는 모두 그 색깔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며, 赤族과 赤貧은 모두 빈곤하여 남은 것이 없다는 뜻에서 왔으며, 赤地의 赤은 尺과 (독음과 용법이) 같다¹¹⁾.) (億音類, 18b)

11) 「赤」과 「尺」의 反切은 완전히 일치하여 同音字에 해당한다(『康熙字典』: “赤, 古文作叅. 唐韻集韻會正韻, 昌石切, 音尺.”). 그래서 「赤」과 「尺」은 同音假借에 해당하는데 《韻會》에서 尺은 赤과 통용된다고 했다.

이처럼 해설 구조는 [표제자]-[소전체]-[본래 의미]-[구조 풀이]-[육서 귀속]-[독음 유래]-[해당 글자로 구성된 단어의 의미 유래] 등으로 되었다. 표제자는 해서체로, 이어서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 《說文》의 소전체를 첨부했고, 다시 해당 글자의 구조를 설명한 다음 그것이 육서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이한 것은 해당 글자의 독음 유래를 밝힌 것인데, 비슷한 독음을 가져와 설명했으며, 《釋名》 이후로 유행해 왔던 ‘聲訓’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응용했다. 독음의 유래를 특별히 밝혀놓았던 것은 아마 중국인보다 해당 한자의 독음을 읽어내기가 어려웠던 한국 독자를 배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해당 글자로 구성된 어휘 중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대해 유래를 밝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 다음의 예를 보자.

天(天): 地之上配也. 從一大, 會意. 古篆作, 上覆之形也. 其高無上, 故顛音. 愛廬子以臺臣 先大王朝講元亨利貞之元字曰: 天從二人, 元仁亦皆從二人, 二, 兼愛之義, 人, 萬物之主. 天從二人, 兼愛萬物之義. 元, 是氣之流行也. 仁, 人之稟是氣也. 其兼愛生生之義. 三字自是一字, 而隨時變化者也. 象其下覆則爲天, 象其流行則其脚曲而爲元, 稟於人則先人作仁, 其終聲則尙今無異. 殿下盡仁字兼愛之義, 則是所謂浩浩其天, 其時適有事, 故演義如此. 上曰: 新聞之語也. 又曰: 爾年幾何? 對曰云云. 一大雖是本義, 以二人解義, 無害於畫, 不違於理. 此字學之活法也. (天: 땅(地)과 위로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一과 大로 구성되었으며, 會意이다. 古篆에서는 로 썼는데, 위쪽이 덮힌 모습이다. 그 위로는 더 높은 것이 없으므로, 顛이라 읽히게 되었다. 愛廬子は 臺臣의 신분으로 先大王朝에서 元亨利貞의 元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天은 二와 人으로 구성되었는데, 元과 仁도 二와 人으로 구성되었습니다. 二는 두루 사랑하다(兼愛)는 뜻을 말하고, 人은 萬物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天이 二와 人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만물을 두루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元은 氣가 흐름을 말하며, 仁은 사람(人)이 이러한 기운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루 사랑하여(兼愛) 끊임없이 생성함을 말합니다. 이 세 글자는 원래 하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것입니다. 아래쪽을 덮은

모습을 그린 것이 天이며, 기가 흐르는데 다리가 굽혀진 모습이 元이며, 사람이 기를 받으면 사람보다 앞서서 인자함(仁)이 만들어집니다. 이들 글자의 종성은 지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仁에 담긴 兼愛의 뜻을 다하신다면, 성인의 미덕이 하늘 가득할 것이요, 일도 항상 때에 알맞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께서 “처음 듣는 해설이로고!”라고 하셨다. 그리고서는 “그대의 나이 올해 얼마인가?”라고 물으셨다. 이에 대답하여 아뢰었다. (줄임). 一과 大로 구성된 것이 (天의) 본래 의미이다. 하지만 二와 人으로 의미를 해석해도, 구조에도 해가 되지 않고, 이치에도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人音類, 26a)

天은 원래     (甲骨文)이나   (金文) 등으로 써, 사람(大)의 머리를 크게 그렸는데, 머리 부분이 가로획(一)으로 변해 지금처럼 되었고, 머리끝과 맞닿은 곳이 ‘하늘’임을 나타냈다. 이로부터 위에 있는 것, 꼭대기, 최고 등의 뜻이 나왔으며, 이후 하늘, 자연적인 것, 기후, 하느님 등도 뜻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서체의 天이 이러한 구조를 잘 나타내지 못하게 되자, 이를 二와 人의 구조로 풀고, 이를 같은 독음을 가진 人과 仁과 元과 연관시켰다. 그리고 이들이 원래는 한곳에서 나온 同源字이며, 이 때문에 의미상으로 연관된다고 풀이했는데, 상당히 독특하며 철학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글자의 원래 구조는 “一과 大로 구성”된 것이지만, “문자의 활용법”을 이용해 “二와 人으로 의미를 해석해도 구조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당시의 자원 해석에 대한 독창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며, 이러한 해석 체계가 가지는 의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洪良浩(1724~1802), <六書經緯序>¹²⁾

이는 <六書經緯>를 짓게 된 연유와 이 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글이

12) 洪良浩는 字가 漢師이고, 號가 耳溪이다.

다. 이를 위해 우선 문자의 형성과정과 문자의 위대한 기능, 그리고 한자의 창제에서부터 大篆·小篆·隸書·楷書로 이어지는 변화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다음으로,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六書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었고 그 결과 諧聲에 근거한 의미해석이 횡행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說文》만이 글자 형체에 근거해 의미를 밝힌 저작이라 할 수 있으나, 《說文》조차도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字體屢變，而六書之義不傳。世之爲字學者，惟從諧聲，焉求之故，盈天下者，大抵三韻四聲之譜而已。獨說文一書，專詳字義，而舉母遺子，略而不備，古聖人制作之精義與旨，猶不見矣。” (글자체가 여러 차례 변하는 바람에 육서의 뜻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상의 문자 학자들은 오로지 諧聲만 따르고 있으니, 어찌 옛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천하에 가득 찬 것이라고는 주로 三韻과 四聲에 관한 것들뿐이다. 오직 《說文》만이 글자의 뜻을 전문적으로 상세히 밝혔다. 하지만, 어미만 들어 해석하고 자식은 버려두는 바람에 간략하여 온전하게 다 갖추지를 못하였고, 옛 성인이 글자를 창제할 때의 정교한 의미와 깊은 뜻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터에 저자가 북방으로 귀양 갔을 때 상용자 약 1천7백 자를 뽑아 글자의 형체에 근거해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의 결과물이 《육서경위》이다.

“余嘗恨之。往歲謫官北塞，閉門窮居，不與外物接，專精默思，若有悟焉。乃取今文恒用者千有七百餘字。形也，意也，事也，聲也，各因其象而釋其義焉。點畫戈權，俱有指歸，轉注假借，錯出互兌，觸類旁通，可以盡天下之文矣。分彙則本之易繫大傳，立言則放乎爾雅釋名。要之辭約而意明，使夫愚夫愚婦皆可與知，命之曰六書經緯。” (나는 일찍부터 이 점을 한스러워하였다. 이전에 귀양을 당하여 북쪽 변방에 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궁핍하게 기거하면서 외부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을 침잠시켰는데, 깨닫는 바가 있는 듯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상용하는 1천7백여 글자를 모았다. 형체요, 의미요, 일이요, 소리오, 각기 그 형상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 내었다. 점과 획과 편방 하나하나 모두 가리키는 바를 갖추었고, 전주와 가차도 섞여 나오고 서로 바꾸어놓았기에, 유추하여 널리 구하면 세상의 모든 글자에 다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어휘를 나눌 때에는 《역·계사》와 《상서대전》에 근원을 두었으며, 말을 세울 때에는 《이아》와 《석명》에 근거했다. 요약하자면, 말은 간략하게 하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둔한 선남선녀라 할지라도 모두 함께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이름을 《육서경위》라 하였다.)

이후 燕京에 사신으로 갔을 때 명나라 魏校의 《六書精蘊》을 구해 이를 검증했다고도 했다.

“後數年西遊中國，博求六書之學，得所謂精蘊者，即皇明太常魏校所撰也。字凡千有餘，上泝鐘鼎之積，下求篆隸之變，自謂得古人心法，庶幾乎六書之遺也。”(수년 후 중국으로 유람갈 일이 있었는데¹³⁾, 널리 육서의 학문을 구하였던바, 소위 《精蘊》이라는 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명나라 때의 太常 魏校가 찬술한 것이다. 글자는 1천여 자 정도 되었으며, 위로는 종정문의 흔적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아래로는 전서와 예서의 변화까지 구한 것으로, 스스로 옛사람들의 心法을 얻었다 했으니, 육서의 전통을 거의 다 갖춘 저작이라 하겠다.)

현전하지는 않지만, 《육서경위》는 글자의 뜻만 간단하게 해석하고 字源의 풀이가 부족했던 당시의 韻書를 보완하여 당시의 상용자 1,700여 자를 대상으로 《說文》에 근거하여 글자의 원래 의미를 자세하게 해석했던 저작으로 추정된다.

(4) 李忠翊(1744~1816)의 <說文新義序>¹⁴⁾

13) 홍량호는 두 차례 중국으로 사신을 다녀왔다. 첫 번째는 1782년(정조 6) 冬至 兼謝恩正使 鄭存謙과 함께 부사의 자격으로 다녀왔고, 두 번째는 1794년(정조 18) 冬至 兼謝恩使의 정사 자격으로 부사 鄭大容과 함께 다녀왔다.

14) 李忠翊은 字가 虞臣이고, 號가 椒園이며, 이 글은 《椒園遺稿》 第255卷 514~515쪽에 실려 있다.

이는 南正和(號 心淵, 生卒年月 未詳)가 썼다고 하는 《說文新義》에 대한 <序>로, 이미 실전되어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說文新義》의 대강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序>에서는 《說文新義》의 저술 과정 및 공헌과 南心淵의 《說文》 연구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소개하고, 《說文》과 許慎, 文字의 流變 등에 대한 南心淵의 인식을 평가했다.

“今南子養心之新意, 不師心而妄鑿, 獨泝源而覽變, 脫略偏旁聲注之微曲; 究觀情形造化之奧妙. 貫穿三極, 倉絡六籍. 危者安, 昧者著. 使許氏之攣曲者伸, 痺弱者強. 而後知者知其忠於許氏, 而不處其薄也.” (지금 南子 養心の 새로운 해석은 스스로 옳다고 여겨 제멋대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변화를 살폈다. 偏旁과 성부에 근거한 주석의 상세한 곡절에 구속되지 않고, 정황과 조화의 심오함을 끝까지 살폈다. 천지인 만물을 꿰뚫었고, 온갖 문헌을 두루 연결했다. 이런 탓에 위태로웠던 것은 편안해졌고, 어두웠던 것은 드러나게 되었으며, 허신의 구부러졌던 것을 펴지게 하였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후의 지식인들이 그가 허신의 충신이지 경박함에 머물렀던 자가 아님을 알게 하였다.)

(5) 朴齊家(1750~1805)¹⁵와 李德懋(1741~1793)¹⁶의 <六書策>

正祖는 정조 16년 임자년(1792) 8월 李德懋 등에게 명하여 《奎章全韻》을 편찬하게 하였다. 《규장전운》이 이루어지자 閣臣 尹行恁, 徐榮輔, 南公轍, 승지 李書九, 李家煥, 校書校理 成大中, 검서관 柳得恭, 朴齊家에게 명하여 교정하게 하고, 여러 신하에게 이에 대한 對策을 명하였다.

정조는 한자의 본질, 구조, 변화, 기능 등 한자 전반에 관한 14가지의

15) 朴齊家是 字가 次修, 在先, 修其이고, 號가 楚亭, 貞蕤, 葦杭道人이다. 이 글은 《貞蕤閣全集》(下), 115~132쪽; 이우성(편), 《樓碧外史海外搜佚本》 제22권 (아세아문화사, 1992)에 실렸다.

16) 李德懋는 字가 懋官이고, 號가 炯庵, 雅亭, 靑莊館, 嬰處, 東方一士, 信天翁이며, 이 글은 《靑莊館全書》 20卷(《표점 영인본》한국문집총간)(민족문화추진회) 제257권, 286~291쪽에 실렸다.

문제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하였다. 정조가 물었던 문제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本質論: 주로 ‘文字’의 名義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① ‘文字’의 名義, ② ‘字’의 本義, ③ ‘文’과 ‘字’의 구분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 (2) 構造論: 주로 ‘六書說’에 대해 논의했는데, ④ ‘六書說’, ⑤ ‘四經二緯說’, ⑥ ‘轉注와 假借에 대한 說解’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 (3) 演變論: 주로 ‘書體의 變化’에 대해 논의했는데, ⑦ ‘古文’의 특징, ⑧ ‘文’과 ‘字’와 ‘書’ 간의 관계, ⑨ ‘八體와 六體’, ⑩ ‘筆寫方式’, ⑪ ‘藝術書體’, ⑫ ‘書法批評’, ⑬ ‘河洛圖書’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 (4) 功能論: 주로 ‘小學의 定義’에 대해 논의했으며, ⑭ ‘名物小學’과 ‘義理小學’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었다.

박제가와 이덕무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답을 했는데, 《說文》을 비롯한 문자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와 관련되어, 당시의 문자학 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과 문자관 및 차이점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조하면 된다.¹⁷⁾

(6) 李圭景(1788~1856)의 <說文辨證說>¹⁸⁾

이는 조선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李五洲가 今本 《說文》의 오류에 대해 변증한 글이다. 그는 이미 <洪亮吉字學辨證說>¹⁹⁾에서 “《卷施閣文乙集》을 읽어보니, <莊進士에게 보낸 편지>와 <孫季述가 지은 蒼頡篇에 붙이는 서문>이 있었는데, 그의 문자학이 이후의 사람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기에 이를 변증해 둔다”라고 하면서, 金本 《說文》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17) 河永三, <六書策所見朴齊家與李德懋之文字觀比較>, 《國際中國學研究》(韓國中國學會) 제6집, 2003.12.

18) 李圭景은 字가 伯揆이고, 號가 五洲, 嘯雲居士이다. 이 글은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經典類>字書部分卷8上, 270쪽에 실렸다.

19)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經典類(2)>小學, 65~67쪽.

夫篆之降隸，增減見於斯篇，文以括音，精博昭於許說。今召陵之書，廣傳於學者，而上蔡之論，半墮於梵編。此季逵所急爲搜輯也。(전서가 예서로 내려가면서 증감된 것이 이 책(《창힐편》)에 보이고, 글자를 독음으로 포괄시킨 것이 허신의 《說文》보다 정교하고 소상하다. 하지만, 지금 召陵 許慎의 책은 학자들에게 널리 전해졌지만, 上蔡 李斯의 논의는 《범장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손계구가 하루빨리 이 책을 찬집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 청나라 顧炎武의 《日知錄》， 명나라 陳大科의 《說文異同》， 趙宦光的 《說文長箋》， 청나라 朱亮工的 《因樹屋書影》， 명나라 王士禎의 《汗簡·跋》， 方中履의 《古今釋義》， 方以智의 《通雅》 등을 인용하여 금본 《說文》의 오류를 깊이 있게 파헤친 것이 <說文辨證說>이며, 이들 자료에 근거해 《說文》에 인용된 경전은 당시의 異本임을 증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以引書與六經異，愚不佞，以說文中所引經傳，乃當時異本，故叔重但取自家所讀而記載，未及他本者也。何以證其爲然。如漢書蔡邕傳……則石經之前，六經文字，人各異焉。故邕有此請正定者也。則叔重所引之經傳，烏得無異，此其一證也。”(《說文》에 인용된 글이 六經과 다른 데 대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說文》에 인용된 경전은 바로 당시의 異本이다. 그러므로 許叔重은 단지 자기 집안에서 읽은 책만을 가지고 기록하였으며 다른 판본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그 한 예로 《한서·채옹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이것은 석경이 세워지기 전에는 육경의 문자가 사람마다 각기 달랐으므로 채옹이 이러한 요청을 해서 정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허숙중이 인용한 경전이 어찌 다를 수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 증거의 하나이다.)

“如漢書儒林傳序……又見李巡傳……取此考之，則先此諸儒，有五經文字私記，各有異同，加知。是亦一證也。”(또 《후한서·유림전》의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이는 <이순전>에도 보인다……이것으로 살펴보면, 이보다 앞서 모든 학자가 오경 문자의 개인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또 한 가지 증거이다.)

“又按。黃思伯東觀餘論，漢石經，與今文不同者，亦一證也。按。萬斯同漢

魏石經殘碑, 則與今經文字多異矣. 叔重引經異字, 何足疑哉! 且顧炎武以爲五經文字不同多矣. 有一經之中, 而自不同者……愚以是證叔重說文引經之有異也.” (또 황백사의 《동관어론》을 살펴볼 때 한나라 석경이 금문과 같지 않은 것이 또 한 가지의 증거이다. 살펴보건대, 萬斯同의 <漢魏石經殘碑>에는 현재 경전의 문자와 다른 것이 많다. 그렇다면 許叔重이 인용한 경전의 글자가 다른 것이 뭐 그리 이상하다 하겠는가? 게다가 고염무는 이렇게 말했다. “오경 문자는 같지 않은 것이 많다. 같은 경전이면서도 다른 것이 있다”……나는 이로써 허숙중의 《說文》에 인용한 경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그간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명·청대의 주요 《說文》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說文》의 한계에 대해 철저히 고증하고 조목조목 변증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 후기 실학파들의 《說文》 연구의 수준을 보여주는 훌륭한 연구라 하겠다.²⁰⁾

또 李五洲는 《說文》 뿐 아니라 중국의 역대 자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변증했는데, <字學集成辨證說>²¹⁾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凡爲字學者, 以六書爲宗, 說文爲祖, 此乃不刊之論也. 雖好辯之士, 此不敢移易. 而字書中集大成者, 梅氏字彙, 張氏正字通. 取字彙正字通, 折衷爲書者, 卽康熙字典. 而有王錫侯者, 以字典爲有未盡善, 纂輯一書名以字貫, 頗有

20)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설문장전》의 우리나라 수입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당시 《說文》 관련서의 유통에 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설문장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모두 4권, 40권으로서 江都(즉 강화도) 行宮을 비롯해 洪啓禧·재상 金致仁·蕉齋 沈念祖의 집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 <역(①)>韻 이하 <食>운부터 <甲>운까지 총 25부가 공통으로 빠졌다. 위에 든 네 곳에 소장된 것이 모두 같은 상황이니, 아마 중국의 판본이 이처럼 낙질되었던 모양이다. 이러한 사실을 함께 기록해 됨으로써 《說文》을 독실히 논하는 후인들의 깊은 연구를 기다린다.”(長箋之來我東者, 凡四套四十卷, 江都行宮, 及洪啓禧·金相國致仁·沈蕉齋念祖家俱藏之. 然①部以下, 自食部至甲部, 二十五部并缺, 四處收藏皆同. 是或中國板本見落若此也. 并記之, 以待後考世之篤論說文者.)

21) 《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經史雜類(2)·典籍雜說》

發明，竟以此書被禍，然書則流行於世，更無雌黃云，其精可知也。”(자학을 하는 자라면 육서를 중주로 삼고 《說文》을 비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이론이다. 비록 변증을 좋아하는 학자들이라 하여도 이것 만은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서를 집대성한 것으로는 매정조의 《자휘》와 장자열의 《정자통》이 있다. 그리고 《자휘》와 《정자통》을 취하여 절충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강희자전》이다. 그러나 왕석후라는 자는 이 《강희자전》도 오히려 진선진미하지 못하다 하고서는 책을 지어 그 이름을 《자관》이라고 하였다. 《자관》은 상당한 발명이 있었으나 끝내 그는 이 책 때문에 화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책은 세상에 유행되어 다시는 고치는 일이 없었으니, 그 정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의 중국 전통 자서에 대한 인식과 《說文》의 이해 수준을 엿볼 수 있다.

(7) 朴瑄壽(1821~1899)의 《說文解字翼徵》²²⁾

이 책은 朝鮮 말기 朴瑄壽(溫齋)에 의해 撰述되고 金晩植의 校閱을 거쳐 完成된 朝鮮時代 《說文解字》 연구의 대표작이다. 朴溫齋의 외오촌 조카인 金晩植은 溫齋의 手稿를 校閱하고 跋文格인 <附記>를 썼을 뿐만 아니라 書眉에 附註를 달아 溫齋의 學說을 補充했으며, 그의 동생 金允植은 책 전체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序文>과 <附記>를 썼다. 책은



朴瑄壽 《說文解字翼徵》書影

22) 朴瑄壽는 字가 溫卿이고, 號가 溫齋이며, 이 책은 1912년 漢城光文社에서 출판되었으며, 현재 부산시립도서관 등에 소장되었다.

1912년 光文社에서 寺內總督의 보조에 의해 石印으로 출판했다.

책에서는 금문에 근거해 《說文》 해설의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832字에 대해 해설했으며, 徵字한 총 글자 수는 1,351字이다.²³⁾ 이를 위해 인용한 청동 기물은 총 35類 387種(任食器 9類 211種; 酒器 14類 107種; 盥水器 2類 24種; 樂器 3類 31種; 武器 4類 7種; 工具 2 種; 貨幣 4種; 璽印1種)에 이른다.

이 책에서는 《說文》 해석상의 오류뿐 아니라 漢字의 構造理論에 대해서도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는데, 특히 文과 字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聲符의 유무에 따라 성부가 있으면 ‘文’, 없으면 ‘字’로 구분했고, ‘文’은 다시 繁從·聯從·疊從·專義·專省 등으로 나누었다.²⁴⁾ 또 部首體系에 대해 批評했으며, 部首 設定뿐 아니라 部首 歸屬의 問題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했다. 또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운용했으며, 글자 해석에 조선의 주류 지배 사상이었던 성리학적 전통²⁵⁾과 조선 후기 실학의 ‘利用

23) 河永三, <朝鮮時對說文解字研究的一個水平: 說文解字翼徵>(《中國文字研究》 제2집, 2001)

24) 文準彗, 《說文解字翼徵解說字譯解》(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25) 예컨대, <祖>의 해석을 보면 철저했던 조상숭배 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按: 今世, 以祖爲父之父稱謂, 而許氏訓爲始廟. 然則何文爲父之父稱謂? 金銘有作 且 者, 每見皇字下, 此即其文. 而小篆不作 且, 以別從幾之且. 故致楷書之無 且 也. 若謂以祖通稱者, 祖之從示, 神之也. 可以神之者, 稱其見在之王父乎. 若謂且即其文者, 且器名也, 語助也, 可以器名語助, 稱於至尊乎? 許氏何不於且字, 訓爲父之父也, 而訓爲薦也? 從幾, 足有二橫乎? 可知許氏之祖下證聲之且, 但以祖且之頭聲, 而非認爲父之父稱謂之文也.”(내 생각으로는, 오늘날 ‘祖’로써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으로 삼고 있는데, 허신은 이를 ‘시조의 사당’이라 풀이했다. 그렇다면 어떤 글자가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겠는가? 금문에서는 且라 표기하기도 했는데, 매번 ‘皇’자 다음에서 쓰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글자이다. 하지만, 소전체에서는 ‘幾’로 구성된 ‘且’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且라 표기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해서에서는 且라는 글자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祖’로써 통칭한다고 하자. ‘祖’가 ‘示’를 의미부로 삼았던 것은, 그것을 신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신으로 모실 수 있는 것으로써 엄존하시는 왕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만약 ‘且’가 바로 그 글자라고 하자. ‘且’는 기물 이름이요, 어조사이다. 기물 이름이나 어조사로써 지존을 부를

厚生'의 實踐躬行 정신과 '實事求是'의 研究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결과 朝鮮朝 《說文》 研究의 集大成作으로 조선의 한자 해석 특징을 계승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해석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金文에 근거한 最初의 《說文》 批評書로 吳大澂의 《說文古籀補》나 孫詒讓의 《古籀拾遺》보다 앞서는 역사적 저작이 되었다.²⁶⁾

(8) 朴致馥(1824~1894)의 <字訓序>²⁷⁾

이는 性齋 許傳(1797~1886)의 《字訓》에 대한 <서>로, 《자훈》의 찬술 배경과 특징에 대해 기술했다. 먼저 許性齋가 이 책을 짓게 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象形轉注之法昉, 而爾埤雅說文羽翼焉. 廣韻, 釋義諸書冠冕之撫, 言家能事畢矣. 然而操觚者, 益鹵以瞽, 水皮鞭犬之傳說, 影娥金根之使事, 譁然作聚訟.” (상형과 전주의 법칙을 밝히는 데는 《이아》·《비아》·《說文》이 도움이 된다. 《광운》은 의미 해석에 관한 여러 책 중에서 최고의 모음집으로, 언어학자들의 가능한 일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글을 짓는 사람들은 갈수록 거칠어져 어지러워만 가고, 글자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水皮鞭犬) 글자까지 고치며(影娥金根) 떠들썩하게 다툰만 벌이고 있다.)

許性齋는 이러한 병폐를 바로 잡고자 책을 만들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

수 있단 말인가? 허신이 어찌해서 '且'자에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뜻풀이하지 않고서 '음식물을 드리다(薦)'로 뜻풀이했던 것인가? '幾'로 구성되었다면, '幾'의 발 사이에 두 개의 가로지름이 있단 말인가? 허신이 '祖'의 해설에서 소리 부라고 한 '且'는 단지 '祖'와 '且'의 성모가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임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溫齋 선생은 조상 숭배사상에 근거해 신성하기 그지없는 할아버지나 선조를 뜻하는 '祖'를 실사도 아닌 어조사로 쓰이는 '且'와 같이 쓸 수는 없으며, 구분해 써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26) 金順姬, 《說文解字翼徵에 관한 研究》(1995); 金玲敬, 《說文解字翼徵研究》(2004); 文準棼, 《說文解字翼徵解說字譯解》(2007)

27) 朴致馥은 字가 薰卿, 號가 晚醒이며, 이 글은 《晚醒先生文集》(卷11)에 실렸다.

과 같다고 했다.

“性齋許先生惟是之病，迺於講學談理之暇，就韻府四聲，剔其繁紊，而彙其故實。音義之錯出者，參互而訂焉，授據之生割者，比類而聯之。其常調而平淡易之者，難澁而鄙俚無用者，不與焉。”(허성재 선생은 이것을 병폐라 여기고서, 강학과 담리의 여가를 빌어 韻府의 四聲에 근거해 그 어지러운 부분을 깎아 내고 고실한 부분만을 휘집하였다. 독음과 의미에서 출입이 있는 경우는 서로 참조하여 바로잡았으며, 인용문에 억지로 나누어진 곳이 있으면 부류를 나열하여 연계시켰다. 그리고 상투적이고 평담하여 쉽게 알 수 있거나 난삽하고 비속하여 쓰이지 않는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어서 《자훈》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是以，爲書才若干卷，而石渠琅寶之富，可一寓目而淹也。館閣摛文之士，圭竇佔畢之儒，庶乎其知所程矣……是編也，裒粹於氾濫浩穰之中，輒軌乎六經之輻，畦畛乎百氏之圃，而用之備訓詁箋疏，名物度數鹹覈如也。覽是者，極其博而爲操約之本，致其粗而入精之具。”(그런 까닭에 이 책은 겨우 몇 권에 불과하지만 石渠²⁸)와 琅寶²⁹)의 풍부함이라도 할지라도 주의해 보기만 하면 그 모두를 덮어버릴 수 있다. 館閣에서 글을 모으는 선비들이나 圭竇³⁰)나 佔畢³¹)의 선비들이라 할지라도 이 책이 路程한 바를 잘 알 수 있

28) 石渠閣에서의 회의를 말한다. 한나라 宣帝 甘露 3년(기원전 51), 전국의 경학자들이 석거각에 모여 五經의 同異에 대해 토론했다. 석거각은 未央宮의 북쪽에 있었으며, 秘書를 보관하던 장소인데, 蕭何가 만들었다 한다.

29) 琅環仙館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나라 阮元의 室名이다. 완원은 청나라 때의 대표적인 박학자로 고증학의 대가였다. 《經籍纂詁》(1799), 《十三經註疏校勘記》(1806)를 편집하였으며, 청나라 여러 학자의 경학에 관한 저술을 집대성하여 《皇清經解》(1829, 1천4백8권)를 편찬하였다. 추사 김정희가 청나라에 갔다와 그를 극찬한 바 있다.

30) 門 앞의 작은 지게문 또는 夾門을 말하는데, 그 모양이 홀[圭]을 닮았으므로 이르는 말이다. 달리 閨竇나 圭竇로 쓰기도 하며, 가난한 사람의 거처를 말한다.

31) 佔은 筭과 같고, 畢은 簡牘을 말한다. 《예기·學記》에 나오는 말로 “오늘날의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점필’만 되풀이하며 그 물음을 많이 해서 말이 수다하기에 이른다(今之教者，呻其佔畢，多其訊，言及於數)”라고 했다. 주석에서,

을 것이다. …… 이 책은 숨털같이 복잡하고 대단히 넓은 것을 한 곳으로 모은 것으로, 六經의 바퀴살에 수레 채 마구리나 멍에 막이가 되며, 제자 백가의 발에 경계 짓는 두둑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써 뜻풀이와 주석, 名物과 度數에 사용한다면 모두가 잇몸같이 되리라. 이를 보는 자는 그 박 학함을 다하되 간략함의 근본을 잡게 될 것이며, 그 조략함을 물리치고 정 교함으로 들어가는 도구가 될 것이다.)

다만, 許性齋가 고문과 경학에 밝았던 許穆의 전통을 이었던 만큼 《字訓》은 한자 해석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하지 않아 실상을 알 수 없음이 안타깝다.

3. 조선시대 《說文》 연구의 특징

이상을 통해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학 연구에서 《說文》이 가지는 위상에 비해 《說文》 자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說文》이 朝鮮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과, 조선 시대 전체를 통틀어 《說文》 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한 저작은 《說文解字翼徵》과 《說文辨證說》 정도에 그치며, 《說文》은 주로 어려운 글자나 기물 등을 해석할 때 인용되었으며, 이 때문에 복각이나 번각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조선 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던 운서와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운서 중 중국의 것을 그대로 복각한 것으로, 《新刊排字禮部韻略》(5권)(中宗 19년, 1524년)³²⁾, 《古今韻會舉要》(30권)(宣祖 6년, 1573년), 《洪武正韻》(16권 5책)(英祖

估은 본다는 뜻이요, 畢은 簡과 통해서 서적 또는 기록을 뜻한다고 했다. 즉 눈에 보이는 글만 되닐 뿐 그 깊은 뜻에는 통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2) 이외에도 《禮部韻略》(宣祖 7년, 1574년), 《排字禮部韻略》(4권)(光海君 7년, 1615년), 《排字禮部韻略》(5권)(肅宗 4년, 1678년), 《排字禮部韻略》(5권 2책)(연대 미상) 등이 있다.

46년, 1770년) 등이 있고,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중국식 운서로 《三韻通考》(미상), 《三韻補遺》(朴斗世, 肅宗 28년, 1702년)이 있으며, 당시 한국의 한자음을 한글로 달아 놓은 것으로, 《東國正韻》(申叔舟 등, 世宗 30년, 1448년), 《華東正音通釋韻考》(朴性源, 英祖 23년, 1747년), 《華東叶音通釋》(朴性源, 正祖 12년, 1788년), 《三韻聲彙》(洪啓禧, 英祖 27년, 1751년), 《奎章全韻》(李德懋, 正祖 20년, 1796) 등이 있으며, 당시 독음을 한글로 단 운서와韻圖로는 《洪武正韻譯訓》(申叔舟 등, 端宗 3년, 1455년)과 《四聲通考》(申叔舟 등, 世宗, 실전), 《四聲通解》(崔世珍, 中宗 12년, 1517년), 《經世正韻》(崔錫鼎, 肅宗 4년, 1678년), 《韻解訓民正音》(申景濬, 영조 26년, 1750년), 《理藪新編》(黃胤錫, 英祖) 등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³³⁾

게다가 같은 ‘자전’이라 하더라도 顧野王之 《玉篇》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자전’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쓰일 정도로 환영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까닭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는 한자 자원에 대한 이해나 연구보다는 한자의 뜻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 ‘자전’의 필요했던 때문에 《說文》보다는 《옥편》류가 중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자서에 비해 운서가 발달했던 것은 한자가 가진 비표음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중국어 습득이 쉽지 않았던 한국인의 처지에서 문자 생활에 직접 쓰이고 있는 한자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자의 독음을 알아야 했고, 계속 변해가는 독음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주요 ‘운서’의 번각이나 한국인에 의한 새로운 운서의 편찬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당시 가장 중요한 협력 국으로서 제일 중요한 외국어였던 중국어의 구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또 당시 유행했던 漢詩 짓기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독음을 익힐 수 있으면서도 간단한 자전의 기능

33) 康寔鎮, 《老乞大朴通事研究》(臺灣學生書局, 1985), 41~42쪽.

도 함께 가진 ‘운서’가 《說文》보다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았던 것 같다.

둘째, 18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비로소 《說文》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진행된 내부 반성과 청나라의 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성행한 實學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선의 대표 학자였던 丁若鏞(1762~1836)이 자신의 마지막 저작인 《尙書知遠錄》에서 평생의 학술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한 언급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余惟讀書之法，必先明詁訓。詁訓者，字義也。字義通而後句可解，句義通而後章可析，章義通而後篇之大義斯見。諸經盡然，而書爲甚。”(내가 생각하는 독서법이란 반드시 먼저 훈고에 밝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훈고라는 것은 글자의 뜻을 말한다. 글자의 뜻이 통한 후에야 구절을 해독할 수 있게 되며, 구절의 뜻이 통한 후에야 문장을 분석할 수 있으며, 문장의 뜻이 통한 후에야 책의 대의가 드러나게 된다. 모든 경전이 그러하거늘 《서》는 더더욱 그렇다.)(《尙書知遠錄·序》)

“古者小學專習字書，字字講究象形會意諧聲之所以然，無不瞭然於心目。方屬文而爲篇章也，字字鳩合，用適其宜。……後世不習字書，直讀古文。故文字之在心目者，皆連二字三四字，多至數十字，而各字各義都芻圖不明。及其發之於篇章也，古文全句隨手使用。其中字義有迥，與事情乖戾者，而亦罔覺，故文皆陳腐，不切事情。”(옛날의 소학은 자서를 전문적으로 배워 글자마다 상형·회의·해성 등의 원리를 세움으로써 머릿속에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글자를 엮어 문장과 책을 지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완전히 들어맞았고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되었다. …… 하지만 후세에 들어서는 자서를 배우지 아니하고 곧바로 고문을 읽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글자는 모두 두 자나 서너 자, 많을 때에는 수십 자씩 함께 연속된 것이어서, 각각의 글자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가 언제나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그것을 발동하여 문장을 지을 때에도 고문의 전체 구절을 손가는 대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글자의 의미가 현격하게 달라 실제 사정과 어긋나도 또한 깨닫지 못했다. 따라서 문장들은 모두 낡고 실제의 사정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다.)(《與猶堂全書·詩文集·說》<字說>).

이처럼 경전의 대의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먼저 따져야 하고, 문장을 따지려면 구절부터, 구절을 따지려면 글자부터 따져야 하는데, 이러한 전통이 후세에 들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戴震이 《東原集》(卷九)의 <與是仲明論學書>에서 말했던 “경전의 최고는 도이다. 도를 밝히는 것은 단어이며, 단어를 이루는 것은 글자이다. 단어로부터 그 도에 이르게 된다면 반드시 발전이 있을 것이다.(經之至者, 道也。所以明道者, 其詞也; 所以成詞者, 字也。由詞以通其道, 必有漸.)”라는 방법과 극히 유사하다. 청나라 고증학의 대표였던 戴震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실학자들도 학문에서 文字를 기초로 삼고, 訓詁와 音韻과 典章制度로부터 經典의 大義를 천명해야 하며, 이로부터 “空言說理”와 “輕憑臆解”의 병폐를 물릴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 시기에 들어 글자 하나하나의 원류를 따지고 해당 글자의 본래 뜻을 해석해 놓았던 《說文》에 대해 주목하고 연구하도록 만든 이유일 것이다.

셋째, 글자 해석상의 독창성과 ‘音訓法’의 적극적인 활용이라 할 것이다. 《第五游》에 대한 언급에서도 지적했듯, 자원을 해석하면서 해당 글자의 독음과 연관 지어 풀이하는 데 공력을 쏟았다. ‘聲訓’이라고도 불리는 ‘音訓’은 訓詁學의 오랜 전통으로, 독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해당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인데, 보통 同音, 雙聲, 疊韻, 音轉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한나라 때의 劉熙의 《釋名》이 이러한 방법을 운용한 대표적 자서이며, 《說文》이나 『이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이후 ‘右文說’ 등으로 확장되었고, 청나라 고증학에 이르러 정밀한 방법에 의한 “因聲求義, 音近義通”의 방법이 운용되었다. 《第五游》에서는 모든 글자에 대해 해당 독음을 갖게 된 연유를 밝히면서 이를 통해 해당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내려 했다. 글자의 의미와 독음이 반드시 연계되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第五游》에서 상당히 억지스런 해석이 자주 보이긴 하지만, 중국 전통의 音訓法을 적극 운용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의 《六書尋源》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운용되었는데, 이러한 해석법이 조선시대 자원 해석의 주류였음을 보여 준다.

또 갑골문이 발견되기 전까지 중국 한자 학계를 계속 지배해왔던 《說文》의 영향력 때문에 《說文》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중국에 비해 다소 자유스러웠던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자 이론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며, 앞으로 이의 이론적 가치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의 언급처럼 《說文解字翼徵》에서는 聲符의 유무에 따라 ‘文’과 ‘字’로 구분하고, ‘文’을 繁從·聯從·疊從·專義·專省 등으로 나누는 등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구조이론을 구축했다. 이에 근거해 《說文》의 部首體系에 대해서도 批評했으며, 部首 設定 뿐 아니라 部首 歸屬의 問題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배열했다. 또 이후의 《六書尋源》에서는 “贅劃論”이나 “隱義說”등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중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이론이라 하겠다.

IV. 일제 강점기의 《說文》 연구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의 하나가 일본 식민지배 시절이었다. 36년간 계속된 이 시기 한국인들은 독립 쟁취를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말과 글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따라서 거리로 뛰쳐나가 독립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했으므로 학문 연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국어의 보존과 한글의 보급에 힘썼으며, 상대적으로 외래 문자인 한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한자는 외래 문자라는 점까지 부각되어 자국 문자인 한글에 비해 홀대받고 배척되었다.

현재까지 이 시기에 이루어진 《說文》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어, 權丙勳의 《六書尋源》과 李隣鎬의 연구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六書尋源》도 사실은 조선시대 말에 집필되었으나 방대한 분량 등으로 출판 지원을 받지 못해 출간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선 총독부의 지원으로 1912년 출간되었기에 편의상 이 시기에 넣었으며, 李隣鎬의 연구도 조선조의 漢學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시대 때의 저

작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1) 權丙勳(1867~1943)의 《六書尋源》³⁴⁾

이는 油印本으로 출판된, 首編 2冊, 本文 27冊, 補編 2冊, 총 31冊에 8,766쪽 600여만 자에 이르는 조선 역대 최고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방대한 저작으로, 총 6여만 자에 대해 해설했으며, 1936년 완성되어, 1938년 출판되었다. 董作賓의 <鄭重介紹六書尋源>(《大陸雜誌》第11卷 第1期, 1955)에 의해 학계에 본격적으로 보고되었으며, 방대한 분량과 한국식의 해설 체계 때문에 별다른 연구가 없다가 2005년에 羅賢美(度垣)의 《權丙勳六書尋源研究》(부산대중문과)와 河水容의 《六書尋源의 저자 성대 권병훈의 六書觀》(부산대한문과) 등 2편의 박사논문이 출판되었고, 그간의 《육서심원》 관련 연구 자료를 모은 權德周(편저)의 《六書尋源研究資料》(해운이, 2005)³⁵⁾가 출판되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육서심원》은 《說文》을 계승한 《육편》·《자휘》·《강희자전》·《광운》·《집운》등을 이용하여 자학서의 집대성을 시도한 역작으로 20세기 초 한국의 한자학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준 대작이다. 특히 한자의 구성 원리와 법칙을 연구 분석하였으며, 그가 제시한 贅劃論이나 隱義說 등은 대단히 창의적인 견해로 평가받았다. 또 <수편>에서는 자신 나름의 육서 분류를 정립하여, 상형류·지사류·회의류·해성류·전주류·가차류

34) 權丙勳은 한말의 학자로 본관은 안동이고, 호가 惺臺이며, 자는 南里이다. 이 책은 당시 中東學校校長이었던 崔奎東의 후원으로 20여 년간에 걸친 연구와 저술 끝에 1936년 완성, 1938년에 출판하였다.

35)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육서심원》을 연구한 저자의 논문과 관련 연구 자료 14편을 수록하였다. <序文>(都珖淳), <自序>(權德周), 1. <六書尋源跋>(鄭寅普), 2. <鄭重하게 六書尋源을 紹介함>(董作賓), 3. <六書尋源復刊序>(李佑成), 4. <六書尋源을 읽고>(權相老), 5. <六書尋源研究>(李家源), 6. <六書尋源과 그 著者에 對하여>(權德周), 7. <六書尋源攷>(李忠九), 8. <六書尋源攷>(金泰洙), 9. <六書尋源의 著者 惺臺의 六書觀>(河水容), 10. <惺臺 權丙勳先生의 世系-生平 및 그 學風>(權德周), 11. <韓國의 法律家象-權丙勳篇>(崔鍾庫), 12. <東權惺臺>(卞榮晚), 13. <中訓大夫 行成均館典籍 權公墓碣文>(權丙勳), 14. <惺臺先生과 나>(權德周).

등으로 나누었는데, “특히 해성류의 분류가 아주 세밀하여 한글의 받침소리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나누었으며, 해성자의 성부에도 은의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문자를 해석하면서 반절음을 활용하였으며, 해성자도 약시자 즉 성모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³⁶⁾

(2) 李隣鎬(1892~1949)의 <說文考異序>와 <說文考異24條>³⁷⁾

<說文考異序>에 의하면 《說文考異》의 찬술 목적이 여러 저서에서 인용한 《說文》을 살펴볼 때 금본 《說文》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今觀諸子所引說文，間多與今本說文不同。”(지금, 여러 저서에서 인용한 《說文》을 살펴보면 대 간간이 금본 《說文》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既有所見，不但容已。敢分四類而錄之，以爲隨考隨入之端。”(이미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진대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감히 네 부류로 나누어 이를 기록해, 쫓아서 살피고 쫓아서 파고드는 실마리로 삼고자 하였다.)

“世或有與我同志者，因全所錄而益加深考，使無復有不同之嘆。則豈徒於說文有功，不佞亦與有榮焉。是則不能無望於今與後之博文君子。”(세상에 혹은 나와 뜻을 같이하는 자 있다면, 전체를 다 수록해 둔 것에 근거하여 더욱 깊이 있게 고증하여, 다시는 다른 탄식이 없게 하소서. 그런즉슨 어찌 단지 《說文》에만 공이 있다 하겠으며, 나 또한 더불어 영광스러우리라. 이런 즉슨 오늘과 이후의 博文君子들께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런 다음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하나하나 논증해 나갔다. 그가 논증한 24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說文》에서 빠진 것으로 보충해 넣어야 할 것(說文逸字當補者): 「謠」

36) 河水容, <六書尋源의 저자 惺臺의 六書觀 一首篇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0권, 314-354쪽, 2003.

37) 李隣鎬는 字가 瓊錫이고, 號가 醒齋이며, 이 글은 《醒齋先生文集》 第1卷(韓國文集叢刊第2922卷)에 실렸다.

·「濤」·「笑」 등 3자.

둘째, 《說文》과 주석 중에서의 빠진 구와 글자 및 뒤섞인 것으로 보충해 넣어야 할 것(說文逸字及註中逸句奪字及錯簡, 當補者): 「桎」·「梏」·「蛤」·「癩」·「竈」·「築」·「睽」 등 7자.

셋째, 《說文》에서 후세 사람들이 마음대로 고친 것(說文爲後人篡改, 當訂正者): 「態」·「躡」·「瑞」 등 3자.

넷째, 후세 사람들이 잘못 끊어 읽어 변증해야 할 것(後人誤爲句讀, 當辨者): 「湫」·「昧」·「詰」·「參商」·「離黃」·「烽燧」·「勝響」·「雋周」·「旁」·「滂」·「綱」 등 11자.

나아가 <字音假借考序>에서는 《說文》과 《史記》 등 역대 문헌에 보이는 假借例 61條에 대해서도 논증해 두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余讀經典，於文字形聲音義之間，苦莫得其要。或音同而字異，或字同而音異，亦或有同字音而異義者。訓詁不同，襲謬而昧正者既多，而膠守而不變通者，亦不少矣。” (내가 경전을 읽음에, 문자의 形聲과 音義의 사이에서 진실로 그 요체를 얻을 수가 없었다. 혹은 독음이 같지만, 글자가 다르기도 하고, 혹은 글자가 같으나 독음이 다르기도 하였으며, 또 혹은 글자와 독음이 같으면서도 뜻이 다른 예도 있었다. 그리고 訓詁가 서로 달랐으나, 잘못이 계속 이어져 바로 잡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뿐 아니라 철석같이 고수하는 바람에 변통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余於讀書之暇，隨錄所見，爲字音假借考，凡六十一字。” (책 읽는 여가를 이용해 본 것을 되는대로 기록해서 <字音假借考>라 하였으니, 모두 61例였다.)

이는 《說文》의 오류와 《說文》에 보이는 假借例를 구체적으로 변증한 수준 높은 글로, 날로 깊이를 더해가는 《說文》 연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 강점 36년 동안 《六書尋源》과 李隣鎬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 성과는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 이에 관한 성과들이 발굴되기를 바랄 뿐이다.

V. 대한민국 시대의 《說文》 연구

1945년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았다. 다른 학문이 그랬듯 조국의 해방과 함께 한자 연구도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시대 말까지 이루어졌던 ‘漢學’의 傳統이 단절됨으로써 우수한 漢學 基礎를 상실했다는 점은 가장 큰 손실이었다. 게다가 새로 출발한 한국인들에게 漢字는 이미 ‘韓國’의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외국의 것’이었다. 大韓民國이 성립한 이후, 漢字에 대한 인식은 정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1945년 이후의 《說文》 연구 자료는 國立中央圖書館(www.nl.go.kr)과 韓國教育學術情報院(KERISS; www.riss.kr)과 韓國研究財團(www.nrf.go.kr)이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삼았다.

1. 학술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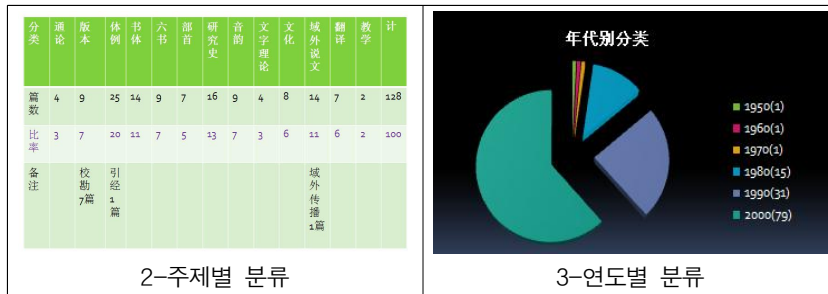
통계자료 추출은, 우선 정기 간행물(학술 논문집)에 실린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독 저서(번역서 포함)는 따로 뽑았다. 또 한국 학자에 의해 한국에서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외국학자로 한국에 머물면서 발표한 논문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함했다. 또 검색 방법은 제목검색에 따랐으며, 부제까지만 포함하고 키워드 검색은 제외했다. 또 번역이나 역주 등에서 많이 보이는 시리즈 형식의 논문은 1편으로 계산했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1954년~2010년까지 총 128편이 추출되었다. 그 구체적 정황과 주제 및 연대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³⁸⁾

38) 분량 관계상 1쪽만 제시하며, 전체 목록은 현재 구축 중인 “한국설문연구자료 DB”와 연계하여 한국한자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著者	題目	期刊名	卷數	年度	頁數	出版單位	비고
申相勳	『說文解字』部首考	論文集	1	1954	77-90	Seoul大學校	部首
Lim, Yim(林尹)	『說文』二徐異訓明序	中國學報	2/1	1964	17-18	韓國中國學會	版本
許進	『說文』音韻考	人文科學	36	1976	25-41	釜山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六音
李興敏	『說文解字』考釋	國民大 論文集	16	1980		國民大學校	魏譯
孫淑敏	『說文解字』簡介	『韓國語文學探究』李慶善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83		民族文化社	通論
李義浩	二徐本『說文解字』流傳 小考	中國語文學	8/1	1984	209-223	嶺南中國語文學會	版本
梁東淑	『說文解字』中외 古文字研究	論文集	25	1984	239-262	淑明女子大學校	音韻
金德均	『說文』引『論語』小考	中國人文科學	3	1984	223-230	中國人文學會	通論
梁東淑	『說文解字』部首의 流變	中國學報	4/1	1984	23-50	韓國中國學會	部首
鄭錫元	『說文』部首考	中國語文學	7	1985	177-207	韓國中國語文學會	部首
秦光豪 ¹⁾	『說文解字』形聲字結構考	中國語文學	12/1	1986	225-238	嶺南中國語文學會	六音
李治洙	『說文解字』通論 ²⁾	中國語文學	12/1	1986	351-352	嶺南中國語文學會	通論
李圭甲	『說文』所從文爲象形之奇體字研究	人文學研究	13/1	1986	41-57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六音
李圭甲	『說文』“某以爲某”例 研究	論文集	14/1	1987	125-148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體例
李圭甲	『說文』“某以爲某”例 研究	人文學研究	14/1	1987	125-147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體例
成讚淑	『說文』通訓定聲』指例	退溪學과 韓國文化(韓國外 哲學)	17	1989	187-201	慶北大學校 退溪學研究所	研究史 / 說文通訓定聲
李賢淑	『韻鏡』音 利用例 『說文解字』 釋例考	西原大學論文集	24	1989		西原大學校	體例
成讚淑	『說文』音韻初探	東方漢文學	5	1989	??	東方漢文學會	音韻
林東錫	『說文解字』考, 試釋	以文會友	10	1990			魏譯
南基守	『說文』音韻字의 聲母 研究	慶山大學 論文集	9	1991	??	慶山大學校	音韻
李賢淑	『說文解字』 釋例考	魯城崔元植教授華甲紀念論文集		1991			體例
金慶淑	『說文解字』 全譯	言語研究		1992		公州大學校	魏譯
金慶淑	『說文解字』普通本 古代社會相(1)	言語研究		1992			文化
崔南奎	大徐本『說文解字』首聲字 考辨	中國語文學	20/1	1992	281-292	嶺南中國語文學會	體例
許進	許慎與『說文解字』考 ³⁾	中國語文學論集	4	1992	1-5	中國語文學研究會	通論
崔漢澤	『說文解字』에 나타난 文字學系類에 對한 研究	中國人文科學	12	1993	1-38	中國人文學會	體論
金錫華	王筠의 『說文釋例』研究(2)	中國學論叢	3/1	1994	199-237	韓國中國文化學會	研究史 /

1-연구목록(학술논문)



주제별 분류에서는 통론·판본·체례·서체·육서·부수·연구사·음운·문자이론·문화·역외설문연구·번역·교학 등 13가지로 나누었는데, 체례, 연구사, 서체, 域外《說文》研究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연도별 분포를 보면 매 10년 단위로 나누었을 때, 1950~1970년대까지 각 1편씩 발표되었는데, 이때까지는 한국 중문학 1세대라 할 수 있는 차상원 교수와 허벽 교수가 쓴 《說文》에 대한 소개와 대만의 임운 교수가 한국에 머물면서 쓴 논문이 모두 정도로 《說文》 연구가 극히 초기 단계에 처했음을 보여 준다. 1970년대 중반 기존의 서울대·성균관대·한

국외대 외에도 연세대·고려대·영남대 등에 중문과가 생기면서 배출한 학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說文》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저술을 낸 대부분 학자가 대만 유학을 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 경학 연구의 기초로서 《說文》을 강조한 대만 학풍의 영향을 받아 《說文》의 전통적 주제가 주 관심사였다. 1980년대 들면서 주요 국립대학을 비롯한 사립대학에 중문과가 설치되었고, 이들 연구 인력이 1990년대 논문의 확대 생산을 주도했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중국학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었고, 한중 수교로 그간 대만 일변도의 유학은 중국 본토로 바뀌게 되었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 일본과 서방 세계로까지 다양화했다. 연구 주제도 《說文》의 초보적 연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문화 연구 붐”의 영향을 받아 2000년대에 들어서는 《說文》에 반영된 문화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2. 학위논문과 저술

1981년~2010년까지 총 22편의 석사학위논문과 6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출판되었고, 13종의 저술이 출간되었는데, 구체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學位論文目錄

著書	題 目	年 度	學 位	大 學
金謙	『說文解字』部首의 字次와 그 意義	1981	碩士	Seoul大學校
黃美羅	六書理論研究	1989	碩士	檀國大學校
김연래	六書小考	1990	碩士	全北大學校
최영택	『說文解字』의 省聲字에 對한 研究: 段注本을 中心으로	1992	碩士	全南大學校
정옥순	『說文解字』에 引用된 詩經의 釋例研究	1993	碩士	中央大學校
文惠利	『說文解字』의 部首 選定原則 研究	1994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金順敏	『說文解字翼微』에 關한 研究	1995	博士	中央大學校
이은경	『說文解字』省聲研究	1996	碩士	漢陽大學校
정학준	『說文解字』“讀若”研究: 『經書』“通人說” 引用을 中心으로	1997	碩士	漢陽大學校
河水容	『說文解字』會意字研究	2000	碩士	釜山大學校/教育
김유연	『說文解字』“籀文”研究	2001	碩士	漢陽大學校
김하승	部首 規範化에 關한 研究: 『說文解字』540部首와 『字彙』214部首를 通하여	2003	碩士	濟州大學校
김영섭	『說文解字』古文字의 體書에 關한 影響 研究	2003	碩士	延世大學校
康丁三	『說文解字』部首字譯解	2003	碩士	Seoul大學校
박경란	異體字 研究--形符通用問題를 中心으로	2005	碩士	成均館大學校
장은영	『說文解字』중 “奴隸”“刑罰” 關聯 漢字의 意味 攪混 研究	2006	碩士	韓國外國語大學校
黃美眞	『說文解字』女部에 反映된 古代女性 이미지 考察	2006	碩士	釜山大學校
이승희	『說文解字』部首(40部)와 『漢師字彙』部首(214部)의 比較 研究	2006	碩士	全北大學校
朴曉羅	部首字의 形義 分析을 通한 身體語彙의 類型 및 意味 變化 研究	2006	碩士	東國大學校
김지연	『說文解字』“?”部首의 意味研究	2007	碩士	韓國外國語大學校
양원석	朝鮮後期文字訓詁學研究	2007	博士	高麗大學校
文惠翊	『說文解字翼微』解說字 譯解	2008	博士	Seoul大學校
송지현	『說文解字』形聲專字研究	2009	碩士	釜山外國語大學校
정하라	『說文解字』“心”部首의 認知言語學的 考察: 心理空間으로 隱喻되는 字를 中心으로	2009	碩士	韓國外國語大學校
김유연	『說文解字』“重文”研究	2009	博士	漢陽大學校
손정	『說文解字』에 引用된 先秦부터 西漢末까지의 “通人說”研究	2009	碩士	漢陽大學校
임진영	李陽壽의 『說文解字』研究: 『說文解字』· 林義壽을 中心으로	2009	碩士	漢陽大學校
金惠經	朴瑄壽 『說文解字翼微』의 干支論 研究: 許慎의 『說文解字』와 比較를 通해	2010	博士	嶺南大學校

이 중 중요한 번역서와 저서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陸宗達(著)·金謹(譯), 《說文解字通論》, 啓明大學校出版部, 1994(2002).
 阿辻哲次(著), 沈敬鎬(譯), 《漢字學: 說文解字의 世界》, 以會文化社, 1996
 (寶庫社, 2008).
 廉丁三, 《說文解字注部首字譯解》, Seoul大學校出版部, 2007.
 金泰完, 《許慎의 苦惱, 蒼頡의 文字》, 全南大學校出版部, 2007.
 王寧(著), 金殷禧(譯), 《說文解字와 中國古代文化》, 學古房, 2010.
 姚孝遂(著), 河永三(譯), 《許慎與說文解字》, China House, 2010(待刊).

單行本目錄

著者	書名	年度	出版社
朴瑄壽	『說文解字翼徵』	1912	刊寫者未詳
유명복	『(說文六百字源 要典: 가장 쉬운 글자 記憶法)』	1973	通文館
이현숙	『老乞大』의 中國音 表記法研究, 爾雅釋詁分析, 『說文解字』 部數의 假借와 二 意義, 『孟子』修辭論	1991	學古房
陸宗達(著)金謹(譯)	『說文解字通論』	1994(2002)	啓明大學校出版部
조립락	『(新說文解字)漢字類編』	1995	木耳社
阿辻哲次	『漢字學: 『說文解字』의 世界』	1996	以會文化社(2008, 寶庫社)
조옥구	『(21世紀 新)說文解字』	2005	白巖
金順姬	『說文解字翼徵』에 關한 研究	2005	韓國學術情報
廉丁三	『說文解字注』部首字譯解』	2007	Seoul大學校出版部
金泰完	『許慎의 苦惱, 蒼頡의 文字』	2007	全南大學校出版部
서영근	『(說文解字) 部首形義 考察』	2009	韓國學術情報
王寧(著)金殷禧(譯)	『說文解字』와 中國古代文化	2010	學古房
姚孝遂(著)河永三(譯)	『許慎與說文解字』	2010	China House

3. 특징과 제안

첫째, 한국에서의 연구인만큼 韓國에서 만들어진 《說文》 관련 저작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조선 최고의 《說文》 연구서라 할 수 있는 《說文解字翼徵》에 대해 金順姬가 처음 소개한 이후로 河永三, 文準彗, 金惠經, 柳東春 등의 연구와 완역이 이루어져 총 13편이 발표될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³⁹⁾ 《說文翼徵》 외에도 이규갑 교수에 의해 《第五游》가 최

39) 《說文解字翼徵》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학위논문이 집필되었는데, 본 연구소 연구원인 金玲敬의 《說文解字翼徵研究》(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研究與應

근 소개되었고, 《六書尋源》에 대해서는 董作賓의 소개 이후 羅度垣과 河水容의 연구가 있었다. 이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연구 업적에 대한 관심과 소개가 필요했던 특수성에 기인한다 하겠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특수성과 장점, 이들과 비슷한 시기 유사한 성격의 국외 저작과의 비교 연구 등은 아직 부족하며, 더욱 수준 높은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說文》의 번역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완성도는 높지 않다는 점이다. 《說文》은 아직도 한국에서 완역되지 않고 있다. 사실 《說文》의 완역은 한자 연구자들이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기도 하다.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시도를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작업이 그만큼 힘들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說文》은 《옥편》 등과 같은 단순히 글자의 뜻을 해석한 자서가 아니라 “五經無雙”으로 일컬어졌던 허신의 경력처럼 당대 최고 경학자였던 저자가 글자의 해설을 통해 자신의 경학 사상을 설교하고자 했던 것으로 철학적 해석이 글자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형이상학적인 “자전”이다. 그래서 방대한 지식 체계와 경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극도의 인내심과 세심함이 더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껏 李炳官의 《說文解字》譯註(1)~(20)(2000~2010)가 가장 지속적이고 꾸준히 일관된 체계로 연구됐다고 할 수 있다. 金慶淑의 <說文解字全譯>(1992)은 “전역”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후 지속하지 못했고, 孫叡徹의 《說文解字翻譯》도 한국학술진흥재단(지금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지만, 아직 출간되지 않아 구체적인 진전 상황을 알 수 없다. 이외에도 金愛英의 <說文解字注十五篇翻譯>(1998)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는 볼 수 있지만, 《說文》보다 몇 배나 방대한 《說文解字注》가 이러한 속도로 언제 완역될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廉丁三의 <說文解字注部首字譯解>(2003)는 《說文解字注》의 540부수자를 한정하여 대단히 성실하게 역해함으로써 《說文解字注》 완역의 시초를 열었

用中心 博士學位論文, 2004)가 있다.

다 하겠으며, 이후 관련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說文》이든 《설문주》든 그렇게 간단한 번역작업이 아니므로, 개인적 욕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를 수행할 실제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국적 현실에서 개별적 연구보다는 ‘설문 번역 연구회’ 형식의 집체적 작업이 완성도는 물론 번역의 질도 높일 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說文》 연구자들이 ‘번역팀’을 구성하여 함께 작업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셋째, 《說文》 자체의 연구에서는 《說文》의 體例와 書體 및 研究史(특히 《說文》 4대가)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說文》 연구자들이 주로 대만에서 유학했고 그 때문에 《說文》의 정통 연구를 강조하는 대만의 학문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說文》의 본격 연구는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의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인의 처지에서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시각과 차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說文》을 통한 문화연구이며, 《說文》에 반영된 자해를 통해 중국인의 원형적 사고를 추적하고 동양 문화의 근원을 파헤치는 연구가 구체적 예가 될 것이다.⁴⁰⁾

넷째, 연구의 불균형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한자학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됐던 것이 《說文》 연구이며, 1899년 갑골문 발견 이후 갑골문을 비롯한 고문자 연구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갑골문의 발견은 분명히 한자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說文》의 한계 극복은 물론 한자학의 발전에 그 무엇보다 큰 공헌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한 때문인지 갑골문에 관한 저술은 수

40) 필자의 최근 몇몇 연속된 주제의 논문들, 예컨대, <‘言’과 ‘文’ 系列 漢字群의 字源을 通해 본 中國의 文字中心의 象徴體系>(2006), <鬼系列 漢字群의 字源으로 살펴본 古代 中國人들의 鬼神 認識>(2007), <『說文解字』 目, 見 系列字를 中心으로 살펴본 中國의 視覺 思維>(2007), <眞理의 根源: 眞의 字源考>(2009) 등은 이러한 의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량이나 종류에서 이미 《說文》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번역되거나 저술된 저작만 해도 15종이나 된다.⁴¹⁾

이렇게 본다면 불과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갑골문에 대한 주요 연구서는 대부분 번역됐지만 《說文》 같은 경우에는 馬敘倫의 《說文解字研究法》 등과 같은 고전적인 저작을 포함하여 번역되어야 할 저작이 많이 빠져 있어, 연구 경향에서 상당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⁴²⁾ 이는 금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문자 영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고 가장 풍부한 문자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개론서조차 번역되지 않은 실정이다.⁴³⁾ 한자학 영역에서의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빨리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정을 거친 균형적인 연구가 건전한 학자학의 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다섯째, 과학적 수단의 활용과 협력 연구의 필요성이다.

오늘날은 컴퓨터 과학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가 실시간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야말로 과학 연구의 토대가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한 시대에 살고 있다.

41) 구체적으로는 《甲骨學一百年》(王宇信, 河永三譯, 5冊, 2010), 《甲骨文과 古代文化》(梁東淑, 2009), 《甲骨文的 發見과 研究》(顧音海, 임호진역, 2008), 《甲骨學通論》(王宇信, 李宰碩譯, 2004), 《中國甲骨學史》(吳浩坤·潘悠; 梁東淑譯, 2002), 《甲骨學의 理解》(吳嶼, 金錫准譯, 2001), 《甲骨學60年》(董作賓, 孫睿徹譯, 1993), 《甲骨文解讀》(梁東淑, 2005), 《甲骨의 世界》(Keightley, David N(吉德煒), 閔厚基譯, 2008), 《甲骨文導論》(陳澧煒, 李圭甲譯, 2002), 《甲骨文述要》(鄒曉麗, 對外投資開發院譯, 2002), 《甲骨文 이야기》(金經一, 2002), 《甲骨文에 새겨진 神話와 歷史》(金成宰, 2000), 《甲骨文的 世界: 古代 殷王朝의 構造》(白川靜, 김옥석譯, 1981) 등이다.

42) 이외에도 蘇寶榮의 《說文解字導讀》(陝西人民, 1988), 宋均芬의 《說文學》(首都師大, 1997), 向夏의 《說文解字敘講疏》, 臧克和의 《說文解字的文化說解》(湖北人民, 1995) 등도 번역되어야 할 저작들이다.

43) 또 고려 때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중국어 교과서로 다양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老乞大》와 《朴通事》에 관한 학술 논문은 2010년 10월 21일 현재 한국에서 출판된 것만 해도 176篇, 학위논문은 74種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식진 교수의 '한국운서연구팀'의 통계자료에 근거함)

중국은 역대 자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었고⁴⁴⁾, 한국의 ‘자서’에 대해서도 한국 한자연구소 주관으로 《訓蒙字會》·《全韻玉篇》·《字類註釋》 등 ‘한국 역대 자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상당한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었고, 뛰어난 연구 성과들과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구미 지역에서의 연구 성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⁴⁵⁾ 이제 이러한 성과를 모범 삼아 각국의 ‘說文研究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자문화권’은 물론 구미 지역을 아우른 전 세계의 《說文》 연구자들이 연합한 공동 연구와 비교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⁴⁶⁾

< 參考文獻 >

- 康寔鎮, 《老乞大朴通事研究》(臺北: 臺灣學生書局) 1985.
 權德周(편저), 《六書尋源研究資料》(서울: 해돋이), 2005.
 金順姬, 《說文解字翼徵에 관한 研究》(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金玲敬, 《說文解字翼徵研究》(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研究與應用中心 博

44) 예컨대 華東師範大學의 “中國文字研究與應用中心”(www.wenzi.cn)은 《說文》부터 《강희자전》에 이르는 주요 자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장 완벽한 디지털아카이브를 확보하고 있다.

45) 프랑스 CNRS의 Françoise Bottéro(蒲芳沙) 교수는 현재 《說文》의 영어번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번역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Shuōwén jiězì lexical entries revisited”(《韓國漢字研究》 創刊號, 2009.12); <翻譯和研究說文解字的一個新思路>, “第2屆許慎文化國際研討會”(2010.10.27~29) 참고.

46) 한국한자연구소의 최근 2년간의 국제학술대회는 이러한 연대 가능성을 시험하고 구체적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기존의 동양권 중심에서 구미지역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는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 및 공유를 화두로 삼고 있다. 홈페이지 www.ks.ac.kr/hanja 참조.

- 士學位論文), 2004.
- 羅賢美(度垣), 《權丙勳六書尋源研究》(부산대중문과 박사학위논문), 2005.
- 文準彗, 《說文解字翼徵解說字譯解》(서울대중문과 박사학위논문), 2007.
- 李圭甲, <第五游初探>(《中國語文學論集》 49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李健茂, 《갈대밭 속의 나라 다호리—그 밭글과 기록》(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8.
- 河水容, 《六書尋源의 저자 성대 권병훈의 六書觀》(부산대한문과 박사학위논문), 2005.
- 河永三, 《韓國歷代中國語言學文論資料集成》(부산: 경성대), 2003.
- 河永三, <六書策所見朴齊家與李德懋之文字觀比較>, 《國際中國學研究》(韓國中國學會) 제6집, 2003.12.
- 河永三, <朝鮮時對說文解字研究的一個水平: 說文解字翼徵>(《中國文字研究》 제2집), 2001.
- 河永三, <朴瑄壽『說文解字翼徵』의 文字理論과 解釋體系의 特徵>, 《中國語文學》(영남중국어문학회) 제38집, 2001.12.
- 韓國古典翻譯院(編輯),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서울: 韓國古典翻譯院), 2009.
- 黃卓明, <韓國朝鮮時代的說文研究>,
KoreaA2Z(東方Media韓國學DB)
KRPIA/MMPIA(NURIMedia韓國學/Multimedia DB)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 中文提要 >

本文根据有關資料庫, 通過對韓國歷代《說文》研究的調查和統計, 指出域外(韓國地區)《說文》研究居多, 《說文》翻譯研究居多, 體例、書體研究等本體研究較多; 指出《說文》研究傾存在着不均衡現象; 指出還需要加

強對《說文》文本的研究、加強《說文》對韓國漢字學影響的研究、加強對《說文》在漢字文化圈內的比較研究；指出朝鮮時代《說文》不被重視和18世紀以后才被重視的原因。

주제어 : 說文解字, 研究史, 說文解字翼徵, 第五游, 六書尋源